

보성군, 벌교 농공단지 청년 근무 환경 개선한다

노후 이미지 개선 청년문화센터 건립 59억 확보 주거형 원룸·식당·쉼터 등 조성...청년 유입 기대

보성군이 벌교 농공단지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노후된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인구 유입에 나섰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9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

리스 사업으로 각 사업당 4년간 지원한다. 보성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돼 1900년 준공해 운영 중인 벌교 농공단지내 노후 산단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계획이다. 지난 10월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벌교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미래 신성장 산업



보성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벌교 입주 기업협의체,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

다. 벌교 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2층·전체 면적 1천300㎡) 1층에는 다목적 청년 문화실,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어학센터, 마음 쉼터, 비즈랩, 2층에는 주거형 원룸 11실과 힐링 쉼터가 조성된다. 특히 주거형 원룸 신설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가 충족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벌교 농공단지 내 공공 지원 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군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군은 농공단지가 10% 분양돼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을 만큼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벌교, 밀력, 조성 농공단지 3곳 모두 산단 환경 조성 사업이 이뤄져 총 189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성=임병연기자

장성군, 체육시설 개선 전남체전 준비 '착착'

총 26억 투입 9개 시설 정비...워라밸돔구장 '하드코트' 교체 완료

장성군이 오는 2025년 전남도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로 대대적인 체육시설을 정비에 나섰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2025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국·도·군비 총 26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9개 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워라밸돔경기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장성실내수영장 ▲공도장 백학정 ▲삼계테니스장 ▲장성호 조정경기장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홍길동체육관이다. 앞서 군은 종목별 경기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국·도비 14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12억원을 추가해 올해 3월부터 체육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워라밸돔구장 하드코트 설치작업을 마쳤으며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관리실 설치 등 마무리 단계다. 내년 초까지 나머지 시설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시설도 일부 정비한다. 장

성군은 장성교육지원청, 장성중학교와 협의를 통해 조명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체전 개최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이 해당 사업비 7천만 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하드코트 교체로 새단장을 마친 워라밸돔구장이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워라밸돔경기장(왼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장성군 제공)

화순 '1만원 임대주택' 인구감소 대응 우수 과제 선정

전남 유일...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인정

화순군의 대표 정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3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에서 주요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됐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그 결과 군을 비롯한 경북 청송, 경남 창녕, 강원 정선 등 4개 지자체의 정책이 우

수 실천 과제로 선정, 전국 시·군·구에 확산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화순군이 유일하다. 이 중 경북 청송은 사과 기반 귀농인 확대, 경남 창녕은 돌봄 공간 개선과 서비스 강화, 강원 정선은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으로 우수 실천 과제에 선정됐다. 만원주택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0호로 시작해 연간 100호씩 2026년까지 총 400호를

공급한다. 2023년 화순군에서 최초로 시작한 해당 정책은 현재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인구 유입이라는 직접적인 성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간접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고민하는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재차 인정받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군의 정책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

등록인구 8.1배...41만9천946명 집계

담양군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81배 더 많아 전남내 인구소멸지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행정부와 통계청의 2분기 생활인구 공표 자료에 담양군의 생활인구가 41만9천94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도 내 16개 인구소멸지역 중 압도적 1위이다. 주민등록인구는 4만1천306명, 외국인등록인구 1천62명

으로 등록인구보다 81배 더 많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 내륙관광 1번지인 생태도시 담양을 찾는 체류인구의 비중이 등록인구 대비 매우 높아 나타났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 외에도 해당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 모두를 포함한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

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모두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기로 함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생활인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사업 등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훈 기자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개관이 오는 12월21일 예정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과 관계자들이 사전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여수시 제공)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내달 21일 개관

미디어아트 등 5개 전시관·1개 특수영상관 구성

전국 최초 해양 기상을 주제로 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오는 12월21일 개관을 앞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사전 방문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이 운영하는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시 공화동 5천29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376㎡ 규모이며,

여수시는 부지 매입비 72억원을 제공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에 선제 대응하고, 해양 기상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 과학시설이다. 국내 최대 콘텐츠를 보유한 '날씨놀이체험관', '해양기상현상관', '해양기상관측관', '해양기후변화관', '미디어

아트관' 등 5개 전시관과 1개 특수영상관으로 구성돼 있다. 정기명 시장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해양 기상·기후와 교육·문화 공간으로 미래 세대에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2028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의해 11일부터 12월17일까지 19일간 공식적 역량 강화 및 시설 홍보를 위해 사전 직원 사전 체험·관람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노벨 문학도시 장흥' 문학관광 정책 논의

정책 아이디어 보고회서 170여건...실현 가능성 검토

장흥군이 문학관광 BI (Brand Identity)를 '노벨 문학도시 장흥'으로 확정하고 문학관광 활성화 정책을 논의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노벨 문학도시 장흥' 정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김성 장흥군수 주재의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학관광 분야 아이디어 170여건이 발표됐다.

김성 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을 위해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달 문학관광 BI로 '노벨 문학도시 장흥'을 확정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계기로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집필활동지인 '문학관광기행특구' 장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다. /장흥=노형록 기자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이번 정책 아이디어 보고회를 시작으로 문학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순천시티투어로 가을빛 만끽하세요"

단풍 명소 선암사·와온해변 코스 등 가을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티투어 가을 특별코스 '가을빛 투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투어는 단풍 명소인 '선암사'와 일몰로 유명한 '와온해변'을 둘러보는 코

스로, 가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풍과 노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제공한다. 운영 첫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가족,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 친구들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에 맞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광객들이 신청해 즐거운 순천 여행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빛 투어'는 11월 매주 수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예약은 순천시마로예약 또는 1899-6221 (여로관광)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정기 기자